

특별한 야간관광 콘텐츠 '전주 심야극장'

시,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영화·음식 결합 체험형 콘텐츠' 운영

전주한옥마을에 조성된 캠핑장 콘셉트의 상영관에서 영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관광 콘텐츠가 운영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시간대 전주한옥마을 트래디셔널에서 영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전주 심야극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캠핑장 콘셉트로 조성된 감성적인 한옥 공간에서 상영작과 연관된 음식을 즐기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전주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기존 영화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전주 심야극장에서는 매일 엄선된 영화와 작품의 배경, 분위기, 스토리와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구성해 영화와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6월 상영작은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금요일)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펠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펠레: 버스 오브 어 레전드'(토요일)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상영작과 연계한 로컬푸드 콤보 패키지도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라라랜드' 상영일에는 오픈 샌드위치와 소고기 타코, 계절 과일과 현미누룽지가 제공되며, '펠레: 버스 오브 어 레전드' 상영일에는 로스트 치킨과 계절 과일, 현미누룽지가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회차당 36명 규모로 운영되며, 온라인 예약은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시 음식 제공과 영화 관람이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예약은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영화 관람만 가능하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심야극장은 영화, 음식, 한옥이라는 전주만의 관광자원을 결합한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라며 "매력적인 야간콘텐츠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시간대 전주한옥마을 트래디셔널에서 영화와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전주 심야극장'을 운영한다.

라인 예약은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시 음식 제공과 영화 관람이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예약은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영화 관람만 가능하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심야극장은 영화, 음식, 한옥이라는 전주만의 관광자원을 결합한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라며 "매력적인 야간콘텐츠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0부 '굿패와 죽음' (2)

행복했습니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남준은 꿇어앉아 서럽게 울었다. 명희는 남준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남준을 만나지 않았고 남준의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저렇게 차가운 흠속에 파묻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남준은 온몸에서 수분이 다 눈물로 빠져 나갈 때까지 밤을 새워 울었고 날이 밝아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곳 명희 곁에서 이대로 죽고 싶었다. 명희의 무덤을 맨들며 머물렀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남준을 발견하고는 시선을 외면했는데 얼마 있다가 아이들이 몰려와 남준에게 돌을 던졌다.

"문둥아! 꺼져라! 문둥아!"

남준은 아이들에게 반항할 힘도 없었다. 날아온 돌이 남준의 어깨와 다리 가슴 얼굴을 때렸다. 피가 흘렀다.

남준은 명희의 묘지 곁을 험겨운 걸음으로 떠났다. 남준은 거의 기다시피 동해원 마을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간 뒤 방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이 밥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 남준을 위로하고 먹이려 했으나 남준은 시늉만 하고 숟가락을 놓아버렸다. 남준은 치료약도 먹지 않았다. 삶의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진주 본원에서 동해원으로 돌아온 투이자는 남준의 상태를 전해 듣고 부랴부랴 남준을 찾아왔다.

"남준 형제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남준은 힘없는 눈으로 투이자를 쳐다봤다. 남준의 몸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상처는 곰아서 터졌고 감염이 일어나 다른 상처로 옮겨갔고 곧 패혈증 증세를 보였다. 남준은 가쁜 숨을 내쉬었다.

숨만 내쉬고 있었다.

투이자는 당장 남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날씨가 너무 더웠고 부채질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투이자는 남준의 손을 잡은 채 남준에게 부채질을 했다.

"수녀님……"

남준은 겨우 눈을 뜨고 투이자를 바라봤다. 투이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남준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수녀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투이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부채질을 하며 남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녀님에게……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남준 형제님……"

투이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준을 바라봤다.

"저의 강 씨 성을…… 수녀님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강 씨 성을 붙여 강투이자로 이름을 쓸게요."

투이자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는 얼굴로 남준을 하늘나라로 보내줬다.

'전북 전통가양주·예술 결합' 청년 예술인 창작 프로젝트

모루협동조합, 'K-풍류마을' 참여자 15명 모집

모루협동조합이 전북의 전통 가양주를 소재로 한 청년 예술인 창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루협동조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돼 청년 예술인 창작 프로젝트 'K-풍류마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사업'은 청년 예술인이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해 예술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함으로써 농업과 예술을 결합한 지역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루협동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의 전통 가양주를 청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콘텐츠 제작과 예술 실험, 아카이브 구축, 박람회, 전시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K-풍류마을' 프로젝트는 전통 가양주와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가양주 양조장 현장 리서치를 통해 재료와 제조 과정, 소리, 빛, 질감 등을 관찰·기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각예술, 창작, 퍼포먼스 등 각자의 분야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청년 예술인 15명이며, 신청은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면접은 10일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최라민 대표는 "술이 빚어지는 과정 속에 담긴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청년 예술인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내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이 전북만의 새로운 풍류문화 콘텐츠를 만

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판' 완창무대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2026 완창무대 '소리 판'의 첫 공연으로 정주희의 김세종제 춘향가를 선보인다.

'소리 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한 바탕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완창 판소리 공연으로, 올해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정주희, 임서연, 조희정, 최영란이 6월부터 11월까지 각기 다른 소리와 개성을 담은 완창무대를 이어간다.

올해 '소리 판'은 △6월 20일 정주희의 김세종제 춘향가 △8월 22일 임서연의 강산제 심정

가 △10월 17일 조희정의 동초제 수궁가 △11월 21일 최영란의 동초제 적벽가로 진행, 국악원은 관소리 완창이 지닌 예술성과 전승 가치를 관객에게 깊이 있게 전할 예정이다.

정주희는 국가무형유산 관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제4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소리의 기량을 인정받았으며, 김세종제 춘향가는 조선 후기 명창 김세종의 소리 맥을 잇는 바디로, 정제된 선율과 품격 있는 사설,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석 무



료이고 공연 예약 및 문의는 국악원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국립민속국악원' 또는 전화(063-620-2320)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